

광산 공공 복지플랫폼 '복지재단' 첫걸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시와 협의...2024년 출범 목표

광주 광산구가 공공복지 플랫폼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뒀다. 28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가장 '광산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복지재단설립자문위원회', 실무부서 협업 TF 등이 참석했다.

광산구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복지 현장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 복지 플랫폼 구축을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설립할 복지재단의 역할, 수행사업, 조직, 인력, 예산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광산구는 특히 재단이 설립 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종사자, 시설장 등 관계자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및 의회와의 소통·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해 재단의 기본모형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용역 기간은 2023년 3월까지며, 광산구는 향후



지난 26일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산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전문기관 및 타당성 검토, 광주시와의 협의 등 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말까지 복지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는 복지재단 설립의 첫 시작일 뿐만 아니라 광산구가 쌓

아온 복지역량과 노하우를 하나로 모아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드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 현장, 전문가, 시민 등과의 소통을 통해 광산만의 특색이 담긴 공공 복지플랫폼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상

광주 자치구 유일...특별교부세 3000만 원 확보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특별상 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평가다.

올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대한 심사에서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광산구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해 왔으며, 2012년(사업연도 기준) 1억140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11억 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년 대비 사업제한 건수가 27% 증가하고, 주민참여예산 한도당 등을 통해 주민 참여율이 5.3%나 늘었다. 참여예산학교 운영률도 15.8%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 못지않은 내실화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시민 삶을 이롭게 하

는 변화가 나타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농촌지역인 동곡동은 재난 등 긴급한 공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마을방송 때마다 방송 장비가 있는 마을회관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신창동 매결마을은 도심 속 낙후한 농촌마을을 골목길을 마을 상징색인 '매화'를 주제로 '농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벽화 등을 조성했다.

주민과 청소년이 참여해 토론하고 직접 변화를 구민 순간들은 신도심 개발 전후 마을 변화상을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또 마을의 가치를 알리고 자원을 활용한 분량동의 '용왕님 마을 브랜드화 사업', 송정1동의 '백세까지 걸어요' 건강체조 프로그램 등도 주민의 호응을 얻으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한 결과 지역이 스스로 변화하는 주민자치기 실현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제안한 정책을 예산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주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광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채와라 광산구 다문화정책팀장(가운데)과 박병규(맨 왼쪽) 구청장, 김양숙 복지정책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구 채와라 다문화정책팀장, 국무총리 표창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채와라 광산구 다문화정책팀장이 인사혁신처 주관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채 팀장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실현 분야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유일한 포상자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03년 공직에 입문한 채 팀장은 현재 광산구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 등을 통해 사회통합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 팀장은 특히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단 구성·운영,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센터 추진 등 광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의 특색을 지역 경쟁력으로 살리고, 다문화가

상생하는 공동체 실현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채 팀장은 실제 대한민국 유일 고려인마을을 '역사마을 1번지'로 조성한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고려인 동포의 역사와 문화에 빛을 비추는 월곡 고려인문화관 운영, 홍범도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홍상과 기념공원 조성을 비롯한 고려인 최초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카라말 군과의 우호·문화 교류 협약 체결 등이 대표 성과로 꼽힌다.

채 팀장의 활약 덕분에 광산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와라 팀장은 28일 "앞으로도 광주 외국인의 질만 이상이 거주하는 광산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관행 깬 파격 인사' vs '특정인 맞춤형'...광산구 첫 인사 논란

박 구청장, 간부 공무원 29명 승진·전보...“성과주의 원칙” 강조 “구청장 따라 인사 틀 바뀌어”...경쟁이 부른 부작용 등 뒷말 무성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처음으로 단행한 간부 공무원의 승진·전보 인사를 놓고 공직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인사 관행을 깬 파격 인사였다는 평가와 함께 치열한 내부경쟁에 따른 무리한 연공서열 파괴 등으로 조직 내에 생체기만 남기는 인사였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4급 승진 1명과 5급 승진 3명 등 총 29명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상현 행정지원과장은 4급으로 승진하면서 자치교육과장에 이름을 올렸고, 기획조정실 채동훈 팀장은 5급으로 승진한 뒤 행정지원과장에 임명됐다. 김은경 건강증진 팀장과 박영호 도로계획팀장은 5급 승진하고, 각각 감염병관리과장과 체육진흥과장에 배치됐다.

또 민선 8기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새로 신설된 5급 보직인 명품길추진단장, 외국인주민과장, 통합돌봄과장에는 각각 조지현, 김양숙, 나성숙 사무관이 전보 발령됐다.

이번 인사를 놓고 공직 내부에서 4급 승진 인사

는 대체로 합리적이었으나, 주요 보직 발령은 그동안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실제 그동안 4급 승진자를 곧바로 핵심 보직인 자치교육과장에 임명하거나, 5급 승진자를 행정지원과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박병규 구청장의 인사 배경을 놓고 공직 내부에선 4급 승진 대상 공무원들간 치열한 경쟁이 빚은 부작용이라는 설부터 특정인의 승진을 염두에 둔 맞춤형 인사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광산구의 한 공무원은 "그동안 연공서열 기준에 따른 인사 발령이 기본이었는데, 이번 5급 전보 인사는 충격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구청장이 바뀌면 매년 인사의 틀이 바뀌었다. 이번 인

사도 특정인의 승진 등을 염두에 둔 사전 맞춤형 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과장과 명품길추진단장의 직렬을 달리한 인사 발령을 두고도 공직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여전히 사무관 승진에서 소외되는 특정 직렬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도 문제점도 지적됐다.

반면 상당수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사권자인 박 구청장이 취임 후 업무 중심의 성과주의를 강조했던 만큼 충분히 예견된 인사발령이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에선 박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첫 인사 발령을 놓고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박병규 구청장은 "공직 내부에 일하는 조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요직 부서의 개념을 바꾸는 인사를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파격 인사라는 오해가 없도록 성과주의를 기증한 인사 철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